

연예뉴스 HOT 3

KBS 드라마센터장 코로나 양성 판정

최근 연예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KBS는 7일 “이건준 드라마센터장이 3일 아침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이 센터장과) 접촉한 직원들은 모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TV 일일드라마 ‘속아도 꿈결’의 아역 연기자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아 촬영이 취소됐다. 같은 날 걸그룹 브레이브걸스도 외부 스태프가 확진 판정을 받아 스케줄을 임시 중단했다. 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선제적 차원으로 검사를 받았고, 이후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수지, 미숙아 심장 수술비 후원...누적 기부금 4억



수지 배우 수지가 미숙아 심장 수술비를 후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7일 “5월 미숙아 환자의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 수지와 연결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월경 난치병 및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쾌척한 1억원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수지는 2016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 난치병, 소아암, 백혈병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 등을 지원해왔다. 누적 기부액이 약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아성 모친상...지병 투병중 별세



배우 고아성이 모친상을 당했다. 7일 소속사 키이스트에 따르면 고아성의 모친이 전날 지병으로 인한 투병 중 별세했다. 소속사 측은 “고아성이 슬픔 속에서 빈소를 지키는 중”이라며 “장례는 가족, 친지들과 조용하게 치를 예정이다.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고아성은 2004년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하다 2006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에서 주연을 맡아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지난해에는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주연했다. 올해 드라마 ‘크라이미퍼즐’ 등에 출연할 예정이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엔터테인먼트 ‘NFT’, 대세 되나?

대체불가 콘텐츠 ‘디지털 자산’이 뜬다

세븐, 2년 5개월만에 ‘모나리자’ 컴백 리아·팔로알토 등도 NFT 음원 내놔 밴드 이남치, ‘수궁가’ 팝으로 재해석

가수 세븐이 2019년 2월 디지털 싱글 ‘콜드’(COLD) 이후 2년 5개월 만인 7일 자작곡에 직접 노랫말을 붙인 신곡 ‘모나리자’를 선보이며 무대로 돌아왔다. 평기 한 분위기의 팝 장르곡에 “운명 같은 인연을 마주한 순간”을 미술관에 전시된 그림 ‘모나리자’를 바라보는 감성에 빚낸 노래이다. 세븐 측은 5일 이 같은 보도자료를 내어 관련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대부분 가수들이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신곡을 발표한다는 내용은 이 보도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신곡의 음원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NFT 음원이다.

앞서 ‘범 내려온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밴드 이남치도 6월 말 NFT 음원을 발매했다. ‘범 내려온다’가 판소리 ‘수궁가’를 팝으로 재해석하며 화제와 인기를 모은 노래라는 점에서 또 다른 화제를 모았다.

이들에 앞서 가수 리아와 합작 뮤지션 팔로알토 등이 이미 NFT 음원을 내놓았다. 세븐과 밴드 이남치, 리아 등은 NFT 오픈마켓 플레이스인 ‘NFT 매니아’를 통해 관련 음원을 발매했다. NFT 음원은 구매자가 해당 플랫폼의 경매 절차를 거쳐 다른 사람과 거래할 수도 있는 디지털 자산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들 가수들



세븐



리아



팔로알토

의 NFT 음원은 희소성을 확보하며 ‘세상 하나뿐인 콘텐츠’인 셈이다.

●세상 단 하나, 대체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

NFT(Non 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복제가 불가능한 고유의 인식값을 부여해 ‘대체할 수 없는’ 파일이라 설명된다. 역시 블록체인 기술에 의존하는 가상화폐와도 다르다. 가상화폐는 일정한 가치를 지니며 현실의 현금 등 화폐처럼 통용될 수 있지만, NFT는 원본을 다수가 소유할 수 없는 배타적 자산으로 받아들여진다.

세븐·밴드 이남치·리아 등이 NFT 음원을 발매한 것도 이 같은 기술이 최근 연예계에서도 서서히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7일 NFT 매니아의 한 관계자는 “이들 말고도 연예인들 분야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콘텐츠 생산자들은 NF

T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자산을 통해 팬들이나 대중과 좀 더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NFT는 미술계를 비롯해 음악·스포츠·게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디지털 콘텐츠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는 국내 연예계에서도 적극 활용되는 분위기이다. 15일 개봉하는 윤여정의 1990년 주연작 ‘죽어도 좋은 경합:천사여 악녀가 되라’의 배급사 블루필름웍스는 “영화 수익의 부분 소유권을 NFT로 분할 판매한다”고 밝혔다. 또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박진영이 이끄는 JYP엔터테인먼트는 1일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손잡고 케이팝 기반 NFT 플랫폼 사업에 진출했다.

●“영화·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확대”

국내 연예계를 대표하는 대형 기획사가 이저덤 NFT 관련 사업에 뛰어든 것도 향후 전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힌다. KOT

RA(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이 지현 미국 실리콘밸리무역관은 최근 보고사에서 “NFT가 생성되면 해당 디지털 항목에 대해 인증 및 소유권 증명이 이뤄져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면서 “이 같은 속성 덕분에 NFT는 한정판 디지털 상품을 만들고 싶은 화가, 음악가, 크리에이터, 영화제작자 등 P술가와 관련업계의 열렬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썼다. 이어 NFT전문 분석 사이트인 ‘Non Fungible.com’과 BNP파리바 라블리에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NFT 시장의 주요 분야는 “판매 규모 기준으로 메타버스(25%)·예술(24%)·게임(23%)·스포츠(13%)·수집품(11%) 등” 순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가상·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인 ‘유니버스(universe)’의 의미를 합친 ‘메타버스(metaverse)’가 최근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에스파 등 케이팝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국내 연예계의 새로운 무대가 되어 가는 흐름도 주목된다.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등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현실과 가상세계가 융합된 콘텐츠를 선보이는 메타버스에서 NFT는 “유저의 사유재산을 증명하는 역할”이라고 이지현 무역관은 설명한다.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위한 도구”이며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와 NFT가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함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연예수 기자 tadada@donga.com

이수근, 데뷔 25년 만에 스탠드업 무대 선다



개그맨 이수근이 9일 넷플릭스 ‘이수근의 눈치코치’를 통해 “빠른 눈치로 연예계에서 살아남는 노하우”를 공개한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개그맨 이수근이 데뷔 25년 만에 처음으로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에 도전한다. 9일부터 넷플릭스에 공개하는 코미디 쇼 ‘이수근의 눈치코치’를 통해 “활활히 누벼온 예능 프로그램에서 미처 들려주지 못한 인생사와 가족 이야기를 통해 공감 어린 웃음을 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동안 국내에서 주로 다뤄진 공개코미디(무대 위에서 미리 짠 풍트를 펼치는 코미디 장르)가 아닌, 출연자 홀로 이야기를 풀어내며 관객과 소통하는 새로운 형식이다.

‘이수근의 눈치코치’는 이수근이 앞서 유병재·박나래 등과 코미디 쇼를 만들어 넷플릭스로 공개한 연출자 김주형 PD와 오랜 시간 준비한 무대이다. 이수근은 7일 온라인

으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25년간 치열한 예능 바닥에서 얻은 ‘눈치’ 하나로 살아남은 스토리를 소소하게 담아냈다”며 “김 PD와 머리 맞대고 극본부터 기획까지 함께 만들어가서 더욱 기억에 남는다”고 소개했다.

무대에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이경규, 강호동 등 ‘대선배’들과 얽힌 일화도 전부 털어낸다. 이경규와 강호동도 “이런 에피소드도 팬들을 것 같다”며 오히려 추억을 복기해줄 정도로 음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스탠드업 코미디는 자연스러운 매력의 핵심”이라며 “장르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 ‘살’(과장)을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했다”고 자부했다.

이번 무대를 시작으로 더욱 다양한 코미

내일 ‘이수근의 눈치코치’ 첫 방송 가족·선배들과 일화 등 대방출

디 무대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전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적은 인원의 관객만 모집할 수 있어 아쉬웠다”면서 “감염병 종식 이후 더 많은 선배 개그맨들과 함께 대규모 관객 앞에서 공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방송가에서 코미디 무대가 점점 사라지는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후배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고민이 돼요. 저마다 아이디어를 갖고 닦아 어느 무대가 열려도 달려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쌓자는 당부를 남기고 싶어요. 언제나 우리 모두가 총출동해서 ‘저런 쇼가 있더니!’ 감탄할 만한 무대를 만들 날이 곧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식용유형 : 과채음료 ●원산지 : 양배추작금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함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